

충격과 감동 준 소설 「푸시킨의 집」

혁명으로 인한 러시아적 삶의 단절 그려 화제



레닌그라드 예술원 앞에 서 있는 푸시킨동상.

러시아의 전통적인 가치와 정서는 혁명으로 인해 단절됐는가? 러시아적 정서란 무엇이며, 혁명은 러시아에 무엇을 가져왔는가를 진지하게 탐구한 한편의 소설이 소련과 유럽의 문단에서 조용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내 독자들에게는 아직 낯선 작가 안드레이 비토프의 장편소설 「푸시킨의 집」이 바로 그 화제의 주인공. 이 작품은 지난 1978년 국외에서 처음 출판된 지 거의 10년 만인 올봄 소련에서도 출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소련독자들 사이에서 강한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프랑스의 시사주간지 「렉스프레스」 최근호가 전했다.

「푸시킨의 집」은 스탈린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1930년대 이후를 배경으로, 지식계급에 속하는 한 가족구성원들의 모습을 통해 현대 러시아의 방향과 혼돈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리오바오도예프체프라는 왕족혈통을 지닌 작가로, 그에게는 저명한 언어학자이자 수학자이면서도 정치적 불화 때문에 시베리아에서 귀양살이를 하는 할아버지와,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부모마저도 외면하는 이기주의적인 아버지, 그리고 혁명으로 탄생된 새로운 러시아에 대해서 혐오감을 누르지 못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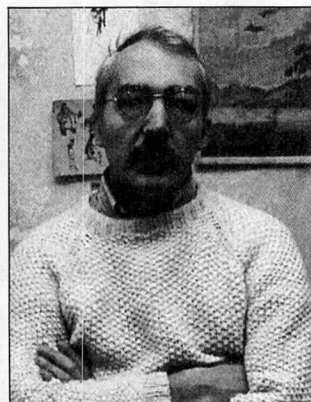
은 과묵한 학자 미티아 아저씨 등이 있다.

작가 비토프는 이 소설의 서두에서 주인공 리오바가 프롤레타리아에 의해 살해되었음을 밝히고 난 뒤, 리오바의 망령을 불러내어 그와 긴 논쟁을 나누는 매우 의미심장한 전개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인물이 되살려 냄으로써 작가는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인가? 이에 대해 비토프는 “과거의 세대가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렸을 때, 과연 현재의 젊은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과학과 현대적인 것이라면 무엇이든 맹목적으로 미쳐버리는 군중에 불과하지 않겠는가”라고 자문한다. 따라서 리오바의 부활은 러시아적 ‘삶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이 작품 속을 흐르는 일관된 주제이다.

작품의 제목인 ‘푸시킨의 집’(현재 푸시킨기념관) 역시 전통적인 가치와 인간성의 회복을 강하게 암시한다. 시인이자 불행한 투쟁가였던 푸시킨은 “내 집을 고쳐야겠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데, 작가 비토프와 주인공 리오바에게 있어 허물어져가는 푸시킨의 낡은 집은 바로 러시아의 붕괴와 부패를 의미하고 있다.

이와같은 작품성향 때문에 「푸시킨의 집」은 「렉스프레스」지로부터 “시대의 최첨단을 걷고 싶어하는 고르바초프에게 신성한 옛 주먹(가치)을 한 방 먹였다”는 평을 듣



안드레이 비토프

기까지 했는데, 혁명이 가져온 아픈 상처를 다시 들춰내 그것을 봉합하려는 작가의 시도가 소련의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느끼게 한 것으로 분석된다.

「푸시킨의 집」에서 비토프가 드러내 보이고 있는 혁명관은 일견 비참하고 처절하다. 침묵 속에 은폐되어 있는 진실들, 귀먹고 눈먼 세대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되찾기 위해 방황하던 지식 청년 리오바의 몸부림은, 결국 보드카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술주정뱅이의 비틀거림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그는 결국 프롤레

타리아 계급 출신이며 혁명이테올로기로 철두철미하게 무장한 친구 미티차티에프에 의해 권총으로 살해되고마는데, 이를 통해 작가는 옛 러시아가 거칠고 난폭한 또 하나의 러시아에 의해 어떻게 살해됐는가를 암울하게 보여주고 있다.

레닌과 스탈린은 과연 러시아의 진정한 모습을 살해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부활할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한 의문들이 「푸시킨의 집」을 화제작으로 만들고 있다.

최초의 영어소설은 무엇인가

영어로 씌어진 최초의 소설은 1553년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였던 제임스 볼드윈의 「고양이를 조심하라」라고 주장하는 흥미로운 책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 마리노에 위치한 헌팅턴도서관에 의해서 출간됐다.

링글러와 플레치먼 두 학자가 편집하고 설명을 덧붙인 「윌리엄 볼드윈작 ‘고양이를 조심하라: 최초의 영어소설」이 바로 그 책으로, 독자는 편집자들의 안내를 받아 최초의 영어소설이 씌어지던 튜더왕조로 여행을 떠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최초의 영어소설가 윌리엄 볼드윈은 확실히 재주가 많았던 인물이었던 모양으로, 시인·화가로서 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에 반대하는 열렬한 신교옹호자로 활동한 설교가이기도 했다. 1556년 그가 발표했던 운문희곡 「메리여왕의 술잔치 주인」이란 작품에는 알파벳 ‘L’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등장인물이 무려 62명이나 등장할 정도로, 볼드윈은 재치와 유머감각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양이를 조심하라」가 씌어진 것은 1553년이지만 작가가 유행병으로 사망한지 7년이 지난 1560년에야 처음 출판됐는데, 고양이의 잔인성과 탐욕을 통해 가톨릭 사제들의 부패를 비판한 일종의 종교적 풍자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화자는 거만하고 학자연하는

매스터 스트리머라는 인물로, 작가는 16세기 話術의 딱딱함을 덜기 위해 화자가 침실에 비스듬히 누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도록 세심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링글러와 플레치먼은 “초기의 로망스들이 알 수 없는 먼 곳, 먼 과거를 이야기의 무대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 「고양이」는 시간과 장소의 개념을 현실적으로 확실히 해두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면모를 찾아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편집자들은 「고양이를 조심하라」에 나타나는 작가의 종교적 신념과 교묘한 구성력, 날카로운 비유와 현실적인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분야에서 기대되는 것과는 반대로 문학에 있어서는 때때로 복잡한 구성과 내용을 지닌 작품이 훨씬 단순한 작품보다 먼저 창조된다”고 말하고 있다. 편집자들의 학문적인 분석과는 무관하게, 서구 예술사에서 나타나는 고양이에 대한 악랄한 이미지의 원조가 윌리엄 볼드윈의 작품이 아닐까 하는 점도 일반독자들에게는 대단히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 수 없었다.

‘크라임 북’ 인기 날로 치솟아

재판이 열리기 위해서는 피고와 원고, 변호사와 검사, 그리고 재판관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재판정에서는 ‘작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제3의 요건이 되고 있다고. 사회적으로 충격을 자아낸 사건재판일수록 기자만이 아니라 취재수첩을 손에 들고 재판정 주변을 기웃거리는 작가들의 모습이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는 얘기가.

실제로 발생한 범죄사건을 다룬 년픽션작품들을 일명 ‘크라임 북’(Crime Book)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종류의 책들은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두배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년픽션부문 베스트셀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최근의 예로는, 지난해 뉴욕 그

리니치 빌리지에서 발생했던 어린 이구타살해사건에 쫓린 작가들의 치열한 관심과 경쟁을 꼽을 수 있다. '리자 스타인버그 살해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현직 변호사인 조엘 스타인버그와 그의 아내이며 동화작가인 헤다 너스바움이 리자라는 6살짜리 양녀를 매일같이 학대하던 끝에 살해한 사건으로, 미국사회에 깊은 충격을 몰고 왔었다. 미국 중산층의 마약중독, 가정 폭력, 매 맞아 죽은 귀여운 소녀 등 대중의 관심을 끄는 완벽한 소재를 갖춘 이 사건의 재판이 열리기가 무섭게 재판정의 좌석을 차지한 사람들이 바로 '크라임 북'작가들이었다. 이들 중 선두주자로 책을 내놓은 작가는 바바라 수잔 브라운 밀러. 그녀의 작품 「흔들리는 장소」(Waverly Place)는 사실과 허구 양쪽에 걸친 이른바 넌픽션 소설로, 등장인물의 이름만 바꾸어 한 가정의 폭력과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을 작가적 상상력을 가미해 흥미롭게 그리고 있다. '리자 스타인버그 살해사건'을 주제로 한 크라임 북으로는 위의 작품 말고도 현재 3편이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한가지 사건에 대해 여러권의 책들이 등장하는 경향은 최근

들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 남자친구를 고용해 부모를 살해한 십대소녀의 사건을 다룬 「아빠의 딸」 「냉정한 살인」 두권이 동시에 선보였으며, 역시 아들로하여금 자란고비 외할아버지를 살해케 한 딸의 사건을 다룬 책으로 「호두까기 인형」과 「어머니의 요청으로」 등이 출판돼 이를 기초로 두편의 TV 미니시리즈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범죄소설을 소재로 한 책들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양한데, 현대인들이 범죄 만연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는 듯하다. 여류작가인 린다 울프는 "내가 존경하는 많은 작가들도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사건에 언제나 관심을 갖고 있었다. 플로베르의 「보봐리 부인」 역시 작가가 그의 친구로부터 들은 한 의사부인의 자살사건이 계기가 됐다. 따라서 범죄사건에 대한 작가들의 관심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녀가 하면 "범죄와 아동학대에 관한 400페이지짜리 학술서를 읽는 것보다도 한권의 크라임 북을 읽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정신이상자를 미리 가려내 끔찍한 사건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감각을 키워주는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에찬론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견해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퍼블리셔스 위클리」지의 칼럼니스트 폴 네이탄같은 이는 "남의 죽음을 놓고 많은 작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매달리는 것을 보는 것만큼 잔인한 일은 없다. 마치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파먹는다는 전설의 귀신들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한다. 단순한 센세이션널리즘과 사회적 타당성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하는가야말로 '크라임 북'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라는 것이 그의 견해다.

체코의 반체제 작가 하벨 재판 임박

고르바초프의 개방정책에 힘입은 자유주의 물결이 체코의 출판계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1968년부터 금서목록에 올라 있던 프란츠 카프카의 「城」 「심판」 「아메리카」 등의 작품들이 올봄에 해금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까지 활동이 금지돼 왔던 반체제적 작가들의 작

품들도 하나둘씩 출판될 계획으로 있어 출판계 관계자들은 물론 독자들을 기대에 부풀게 하고 있다고 최근 한 의사는 전했다.

그러나 출판계에 있어 새로운 '프라하의 봄'을 기대하기에는 아



1월 16일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 참가하여 연설을 하고 있는 바클라브 하벨

직 때가 이르다는 것이 동구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최근들어 날로 팽배해가는 표현의 자유욕구에 대한 체코정부의 수용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는 심판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희곡작가 바클라브 하벨(52)의 재판이 올봄 열릴 예정으로 있어, 지금 체코 지식인들의 눈과 귀는 이 재판의 과정과 결과에 쏠려 있다고.

지난 1월 16일 불법집회참가죄로 구속돼 현재 루진감옥에 수감중인 하벨은, 19세기 체코국민문학부흥을 주도했던 위대한 작가 카렐 하블리체크-보로브스키에 필적하는 '체코문화의 정신적 수호자'로 체코 국민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다. 카프카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하벨의 희곡 역시 1968년부터 발표가 금지되어, 독자들은 연극무대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하출판물을 통해서만 그의 작품들을 접할 수 있었다.

현재 체코내에는 무려 229명의 작가들이 악명높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하벨 재판결과가 지금까지 체코의 문화계를 좌여왔던 고삐를 푸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방침이 강경노선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국내외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오랜 세월 시달려온 탄압과 구속, 검열로 인하여 체코의 문화가 이미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닌가라는 탄식에 가까운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오에리 기자

「뉴욕타임스 북 리뷰」 베스트셀러목록 1989년 2월 19일 현재

순위	소설	비소설	페이퍼백 소설	페이퍼백 비소설
1	MIDNIGHT 딘 R. 콘츠(피트남) 불가해한 죽음과 공포가 캘리포니아 마을을 엄습한다.	BLIND FAITH 조 맥기니스(피트남) 1984년 뉴저지주 톰스 리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파헤친 한 가정의 비극	THE SHELL SEEKERS 로자몬드 필처(텔) 영국의 한 가문의 삼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오는 그림	TRUMP 도널드 J. 트럼프/토니 슈바르츠 (워너) 미국 경제의 거물 트럼프의 사업스타일
2	THE SANDS OF TIME 시드니 셸던(모로) 스페인 군대와 바스크분리주의자들의 충돌에 휘말린 4명의 수녀들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ARTEN 로버트 펠검(빌라도) 수필집	INHERITANCE 주디스 마이클(포켓) 보스턴 비콘 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한 집안내의 질투와 경쟁	LOVE, MEDICNE & MIRACLES 버니 시켈(페레니얼/하퍼앤드로) 환자와 정신과 감정의 중요성
3	RIVALRY 자넷 데일리(리틀, 브라운) 사업과 사랑 양쪽에서 서로 경쟁하는 가문들의 이야기	A BRIEF HISTORY OF TIME 스티븐 W. 호킹(벤틀) 영국의 물리학자 호킹의 우주론	THE BONFIRE OF THE VANITIES 톰 울프(벤틀) 도시의 정글 뉴욕에서 곤경에 처하게 된 주식거래인	THE ROADLESS TRAVELED M. S. 팩(터치톤/S&S) 정신분석 의사의 심리학 및 영감에 관한 글
4	THE CARDINAL OF THE KREMLIN 톰 클랜시(피트남) 소련에 붙잡혀 있는 미 정보원을 구출해내기 위한 CIA요원 라이언의 활약	GRACIE 조지 번스(피트남) 유명한 희극배우 조지 번스가 회상한 아내 그레이시의 모습들	MORTAL FEAR 로빈 쿡(버클리) 한 생물학자의 죽음으로 인해 드러나는 의약품을 둘러싼 미스테리와 보스턴의 지하세계	ALMOST GOLDEN 그랜다 블레어(에이본) 인기 TV앵커였던 제시카 새비치의 성공과 몰락을 파헤친 전기
5	A SEASON IN HELL 잭 히킨스(사이몬 & 셔스터) 양자의 살해자들을 뒤쫓는 젊은 미망인	THE LAST LION 윌리엄 맨체스터(리틀, 브라운) 윈스턴 처칠 전기 제 2편(1932-40)	THE ACCIDENTAL TOURIST 앤 타일러(버클리) 한 여행전문가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는 가족과 친구들	DONNIE BRASCO : My Undercover Life in the Mafia 조세프 D. 피스톤, 리차드 우들러(시넬/NAL) FBI요원의 경험담
6	MUTATION 로빈 쿡(피트남) 수퍼 어린이를 창조하려는 한 내과의의 시도로 인해 벌어지는 공포	PARTING THE WATERS 테일러 브랜치(사이몬 & 셔스터)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민권운동	THE CHARM SCHOOL 넬슨 드빌(워너) 소련을 여행하던 여행자에 의해서 밝혀지는 KGB의 미 공격음모	THE POWER OF MYTH 조세프 캠벨, 빌 모리어스(더블데이) 인간과 삶과 신화의 관계
7	BREATHING LESSONS 앤 타일러(크노프) 28년 동안 결혼생활의 여러 면모들	"WHAT DO YOU CARE WHAT OTHER PEOPLE THINK?" 리차드 P. 파인만, 랠프 레이튼(노튼)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파인만 회고록	ROCK STAR 제키 콜린스(포켓) 남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세명의 록가수들의 사랑과 고통	SMALL SACRIFICES 앤 룰(시넬/NAL) 오래근주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근친상간과 살해사건에 관한 기록
8	THE LYRE OF ORPHEUS 로버트슨 데이비스(바이킹) 미완성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는 과정에서 아더왕의 전설이 되살아난다.	CHILD STAR 셸리 템플 블레이크(맥그로힐) 아역 스타로 명성을 떨쳤던 셸리 템플 자서전	LONESOME DOVE 래리 맥머트리(포켓) 웨스턴 소설	FAMILY : The Ties That Bind... and Gag! 어마 봄베크(포켓) 장성한 자녀들과의 재회를 주제로 한 유머러스한 글
9	A TWIST IN THE TALE 제프리 아처(사이몬 & 셔스터) 단편집	A BRIGHT SHINING LIE 닐 쉬한(랜덤하우스) 존 폴 뱀이란 동물을 통해 살핀 월남전 실상 인	THE BUTCHER'S THEATER 조나단 켈러먼(벤틀)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연쇄살해범 추적전	TIME FLIES 빌 코스비(벤틀) 50세에 접어든 TV스타의 인생론
10	ONE 리차드 바크(실버 애로/모로) 환상의 세계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부부	DON'T BEND OVER IN THE GARDEN GRANNY, YOU KNOW THEM TATERS' GOT EYES 루이스 그리자드(빌라도) 남부식 유머집	ZERO 에릭 반 러스트베더(포켓) 한 미국인이 미국을 파괴시키려는 일본 비밀조직과 결탁한다.	THRIVING ON CHAOS 톰 피터스(페레니얼/하퍼 & 로) 기업생존방법